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6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2개 중 2개 · 자막 11,891구간 · 발언기록 2,359문단

발체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 기후·에너지 · 1부 00:28:38
- 환경·시설 · 1부 01:31:53
- 재난·예측 · 1부 01:01:55
- 전환·투자 · 1부 01:22:56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체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기후·에너지

[1부 00:28:38-00:29:29 · 영상 확인](#)

>> 예. 어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처후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비롯하여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원이 14차례의 전원 회의와 다양한 현장의견을 현장 의견 청치를 통해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시설

[1부 01:31:53-01:32:44 · 영상 확인](#)

>> 그다음 자료도 보시고요. 본인이 생전에 겪었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을 넘어서 어 풍역적이었습니다.이 프레스안의 기사화가 돼서 저도 관심을 갖고이 좀 보게 됐는데요. 유족에 따르면은 고인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현장에 투입이 돼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장시간 노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2024년 8월 9일 밤 업무를 마치고 들어간 고인은 자정에 연락을 받고 새벽 출근을 했습니다. 당시 업무는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 역할이었는데 어 적절한 안전 교육이나 장비도 받지 못하고 막대기 하나로 어 그런 신호수 역할을 이어갔다고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재난·예측

1부 01:01:55-01:02:39 · 영상 확인

받을까 봐 자신의 회사가 피해를 받을까 봐 실제로는 산재를 어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에 전기공사하는 하청 업체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됐어요. 하상 입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으로 그랬으니까 저는 산재 신고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와 업체들이 또 수주를 못 받을까 봐.이 이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용 노동부에서 실제로는이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대책이 저는 일단 필요하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 신고를 할 수 있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환·투자

1부 01:22:56-01:23:42 · 영상 확인

그런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이 그게 압류 못 하게 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그나마 조금 순통이 돼 있다는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진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많은 진통이 있지만 결정을 할 결정을 할 때는 최저 임금 위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질문할 텐데 PT를 좀 뛰어봐 주시면요. 그 약 800만 790만 되는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 고금리 고물가 고임대로 거기다가 대규모대 자본에 의한 플랫폼 이게 배달앱수 수력 경제 거기다 내수 불안까지 말이 경제가 좋다 그러지만 서상인들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	자막 상태	구간 수
1부 · j0LEDDvY19E	자막 수집	8,482
2부 · fWBAd5uy2Cc	자막 수집	3,409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영상 설명에 시각별 진행 안내가 없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7 00:1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